

정상경

요앞 건축 (YOAP Architects)

낮선 세계로의 여행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공간 건축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영국으로 떠나 런던 예술대학교 Interior and spatial design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요앞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대표로 건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면서 건축 관련 기획, 자문, 심사 및 시민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요앞 건축은 대립되는 이상과 실제의 건축의 접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건축은 통합적 예술의 집합체라 믿으며, 건축계획, 도시재생, 전시기획, 오브제 디자인, 사진 등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YOKKO'S BITE MARKS



YOKKO'S BITE MARKS_From Damage to Architecture
: A chair loved by people, damaged by a dog, and rebuilt as architecture.

YOKKO'S BITE MARKS는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버려질 위기에 놓인 의자를 다시 누군가의 세계로 돌려놓는 일이다. 반려견 요꼬는 이 의자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뜯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훼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애정의 흔적이었다. 건축이 시간이 지나며 마모와 균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듯, 이 의자 또한 상처를 제거하는 대신 그 흔적을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버려질 뻔한 두 개의 사물이 만나, 폐기될 사물에서 시간과 기억을 담은 작은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